

JPA Entity Relation

1. 엔티티 매핑

JPA(Java Persistence API)를 사용하면, 자바 클래스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매핑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하는 클래스를 엔티티(Entity)라고 하며, 이 엔티티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데이터베이스의 행(row)에 해당한다. 이러한 매핑을 통해,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객체 지향적인 방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JPA는 이 매핑 정보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상호작용을 처리한다.

[JPA 주요 어노테이션]

@Entity : 클래스가 JPA 엔티티임을 나타낸다. 클래스 이름이 DB 테이블 이름에 매핑된다.
@Table : 엔티티 클래스가 매핑될 테이블의 정보를 명시한다. (name, catalog, schema 등의 속성을 가질 수 있음)
@Id : 엔티티의 기본 키(Primary Key)를 나타낸다.
@GeneratedValue : 기본 키의 값을 자동으로 생성할 전략을 명시한다.
(AUTO, IDENTITY, SEQUENCE, TABLE 중 선택)
@Column : 필드가 매핑될 테이블의 컬럼을 명시한다.
(name, nullable, length 등의 속성을 가질 수 있음)
@ManyToOne, @OneToMany, @OneToOne, @ManyToMany : 엔티티 간의 관계를 명시한다. (@JoinColumn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JoinColumn : 외래 키(Foreign Key)를 매핑할 때 사용한다.
(name, referencedColumnName 등의 속성을 가질 수 있음)
@Transient : 필드가 영속성 컨텍스트에 저장되거나 검색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Temporal : 날짜 타입(java.util.Date, java.util.Calendar)의 매핑을 명시한다.
(TemporalType.DATE, TemporalType.TIME, TemporalType.TIMESTAMP 중 선택)

1) 엔티티와 테이블 매핑

@Entity 어노테이션은 클래스가 JPA 엔티티임을 나타낸다.
@Table 어노테이션은 엔티티가 매핑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이름을 지정한다. 만약 @Table 어노테이션을 생략하면, 클래스 이름이 테이블 이름으로 사용된다.

[예시]

- 이 코드에서 User 클래스는 users 테이블에 매핑된다.

```
@Entity
@Table(name = "users")
public class User {
}
```

2) 기본 키 매핑

각 엔티티는 고유한 식별자를 가져야 하는데, 이를 기본 키(Primary Key)라고 한다. @Id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필드를 기본 키로 지정한다. @GeneratedValue 어노테이션은 기본 키 값의 생성 전략을 지정할 때 사용한다.

[예시]

- 이 코드에서 id 필드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기본 키로 지정된다.

```
@Entity
public class User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
```

3) 필드와 컬럼 매핑

@Column 어노테이션을 사용하여 엔티티의 필드가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컬럼에 매핑될지 지정할 수 있다. 이 어노테이션을 생략하면 필드 이름이 컬럼 이름으로 사용된다.

[예시]

-이 코드에서 username 필드는 user_name 컬럼에 매핑되며, null 값을 허용하지 않고 최대 길이가 50인 컬럼으로 지정된다.

```
@Entity
public class User {
    @Id
    private Long id;

    @Column(name = "user_name", nullable = false, length = 50)
    private String username;
}
```

2. Entity 관계매핑

1) 객체와 테이블의 연관관계의 차이

테이블은 참조키(FK)로 연관된 테이블을 찾아 접근하는 반면 객체는 참조(reference)로 연관된 객체를 찾아 접근한다. 참조키(FK)로 양쪽에서 조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방향의 개념이 의미가 없다.

[예시]

```
SELECT * FROM POST P JOIN REPLY R ON P.POST_ID = R.POST_ID  
SELECT * FROM REPLY R JOIN POST P ON R.POST_ID = P.POST_ID
```

객체는 테이블과 다르게 참조용 필드가 Entity에 존재해야 연관객체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쪽방향으로만 참조하면 단방향 참조이고 양쪽에서 참조하면 양방향 참조이다.

[예시]

@Entity

```
public class Book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private String title;  
  
    @ManyToOne  
    @JoinColumn(name = "author_id")  
    private Author author;  
}
```

@Entity

```
public class Author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private String name;  
  
    @OneToMany(mappedBy="Author")  
    private List<Book> books = new ArrayList<Book>();  
}
```

Entity관계 매핑은 객체 간의 관계를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간의 관계에 매핑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의 복잡한 관계를 데이터베이스에 효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2) 단방향 관계 , 양방향 관계

단방향 관계

- 단방향 관계는 한 엔티티가 다른 엔티티를 참조할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의 참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를 말한다.

[예시]

@Entity

```
public class Book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private String title;  
  
    @ManyToOne  
    @JoinColumn(name = "author_id")  
    private Author author;  
}
```

@Entity

```
public class Author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private String name;  
}
```

이 예시에서 Book 엔티티는 저자(Author)를 참조하지만, Author 엔티티는 Book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

양방향 관계

- 양쪽 클래스에서 서로 접근할 수 있는 관계이다. 양방향 관계는 참조를 양쪽에 모두 유지해야 한다. 즉 양방향 관계는 두 엔티티가 서로를 참조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 양방향 관계는 단지 단방향 관계에서 반대 방향으로 조회(객체 그래프 탐색) 기능이 추가된 형태이다. 단방향 관계매핑을 잘하고 양방향 매핑은 비즈니스 로직상 필요할 때 추가해도 되며 이러한 Entity의 수정은 테이블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단방향 관계는 구현이 간단하고 명확하지만, 양쪽 엔티티 간의 관계를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반면 양방향 관계는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양쪽 엔티티에서 서로를 참조해야 하므로 관리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에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관계 유형을 선택해야 한다.

[예시]

```
@Entity
public class Author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private String name;

    @OneToMany(mappedBy = "author")
    private List<Book> books = new ArrayList<>();
}
```

```
@Entity
public class Book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private String title;

    @ManyToOne
    @JoinColumn(name = "author_id")
    private Author author;
}
```

이 예시에서는 Author 엔티티가 자신이 쓴 Book들을 List<Book> 형태로 가지고 있으며, Book 엔티티는 자신의 Author를 참조한다. 이로 인해 양방향 관계가 형성된다.

양방향 연관관계 매핑시 주의 사항

- 양방향 매핑시 연관관계의 주인에 값을 입력해야 한다. 연관관계의 주인이 아닌 엔티티에서 연관관계를 변경해도 데이터베이스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항상 연관관계의 주인 쪽에서 외래 키를 설정하거나 변경해야 한다.

- 양쪽에 값을 입력하기 편하도록 연관관계 편의 메소드를 생성하여 사용 한다.

- toString(), Lombok, JSON 생성 라이브러리 사용 시 무한 루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양방향 매핑 시 무한 루프에 주의해야 한다.

3) 연관관계 주인

양방향 연관관계에서는 두 엔티티가 서로를 참조한다. 이때 어느 한쪽이 연관관계를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이쪽을 '연관관계의 주인'이라고 한다. 연관관계의 주인은 데이터베이스에 외래 키(Foreign Key)를 실제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엔티티이다.

연관관계의 주인을 정하는 이유는 JPA가 데이터베이스에 외래 키를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주인이 아닌 쪽에서 연관관계에 변화를 주어도 데이터베이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인만이 연관관계를 변경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할 수 있다.

@Entity

```
public class Post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private String subject;

    @OneToMany(mappedBy = "post")
    private List<Reply> replies = new ArrayList<>();

    // 편의 메소드
    public void addReply(Reply reply) {
        replies.add(reply);
        reply.setPost(this);
    }
}
```

@Entity

```
public class Reply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private String content;

    @ManyToOne
    @JoinColumn(name = "post_id")
    private Post post;
}
```

여기서 Reply 엔티티의 post 필드에 @ManyToOne과 @JoinColumn(name = "post_id")가 설정되어 있다. 이 경우, Reply 엔티티가 연관관계의 주인이 된다. 즉, post_id 외래 키를 실제로 관리하는 쪽이다.

Post 엔티티의 addReply 메소드는 연관관계를 편리하게 설정하기 위한 메소드이다. replies 리스트에 Reply를 추가하면서, 해당 Reply의 post 필드도 설정한다. 이렇게 하면 연관관계를 양쪽에서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다.

4) 매핑 관계

@ManyToOne (다대일) 관계 매핑

하나의 엔티티가 다른 엔티티의 여러 인스턴스와 관련될 수 있는 관계이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연관관계이며 외래키가 있는 쪽이 연관관계의 주인이 된다. 양쪽을 서로 참조하도록 개발한다. 예를 들어, 여러 개의 주문(Order)이 하나의 고객(Customer)에게 속하는 관계이다.

@Entity

```
public class Order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ManyToOne  
    @JoinColumn(name = "customer_id")  
    private Customer customer;  
}
```

@Entity

```
public class Customer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OneToMany(mappedBy = "customer")  
    private List<Order> orders = new ArrayList<>();  
}
```

@OneToMany (일대다) 관계 매핑

하나의 엔티티가 다른 엔티티의 여러 인스턴스와 관련될 수 있는 관계의 반대 방향이다. 엔티티가 관리하는 외래키가 다른 엔티티에 존재하므로 다대일 양방향 매핑을 선호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저자(Author)가 여러 권의 책(Book)을 출판한 관계이다.

@Entity

```
public class Author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OneToMany  
    @JoinColumn(name = "author_id")  
    private List<Book> books = new ArrayList<>();  
}
```

@OneToOne (일대일) 관계 매핑

두 엔티티 간에 서로 하나만 관련될 수 있는 관계이다. 다대일 단방향 매핑과 유사하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사용자(User)가 하나의 프로필(Profile)을 가지는 관계이다.

@Entity

```
public class User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userId;  
  
    @OneToOne  
    @JoinColumn(name = "profile_id")  
    private Profile profile;  
}
```

@Entity

@Getter

@ToString

```
public class Profile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profileId;  
  
    @OneToOne
```



```

        @JoinColumn(name = "user_id")
        private User user;
    }

```

@ManyToMany (다대다) 관계 매핑

두 엔티티 그룹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된 관계를 가질 때 사용된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정규화된 테이블 2개로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수 없고 중간에 연결테이블을 추가해서 일대다, 다대일 형태로 다대다 관계를 구현한다. @JoinTable로 연결테이블을 지정하며 가급적 권장하지 않는 관계매핑 모델이다. 예를 들어, 여러 학생(Student)이 여러 강좌(Course)에 등록할 수 있는 관계이다.

```

@Entity
public class Student {
    @Id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private Long id;

    @ManyToMany
    @JoinTable(
        name = "enrollment",
        joinColumns = @JoinColumn(name = "student_id"),
        inverseJoinColumns = @JoinColumn(name = "course_id")
    )
    private List<Course> courses = new ArrayList<>();
}

```

5) 지연 로딩(Lazy Loading) vs 즉시 로딩(Eager Loading)

- 지연 로딩과 즉시 로딩은 JPA에서 연관된 엔티티를 언제 로딩할지 결정하는 두 가지 전략

지연 로딩

- 엔티티의 속성 값이 실제로 사용될 때까지 로딩을 지연시키는 방법이다. 실제로 필요한 시점까지 데이터 로딩을 연기함으로써 불필요한 데이터베이스 접근을 줄일수 있으므로 성능 최적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즉시 로딩

- 엔티티를 로딩할 때 연관된 엔티티까지 모두 즉시 로딩하는 방법이다.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오지만, 불필요한 데이터까지 로딩할 위험이 있다.

[관계별 default 연관관계 매핑 전략]

@OneToMany : LAZY
@ManyToOne : EAGER
@OneToOne : EAGER
@ManyToMany : LAZY

[예시] 저자와 책의 관계

@Entity

```
public class Author {
```

```
    @Id
```

```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

```
    private Long id;
```

```
    private String name;
```

```
    @OneToMany(fetch = FetchType.LAZY) // 지연 로딩 설정
```

```
    private List<Book> books = new ArrayList<>();
```

```
}
```

@Entity

```
public class Book {
```

```
    @Id
```

```
    @GeneratedValue(strategy = GenerationType.IDENTITY)
```

```
    private Long id;
```

```
    private String title;
```

```
    @ManyToOne(fetch = FetchType.EAGER) // 즉시 로딩 설정
```

```
    private Author author;
```

```
}
```

[지연 로딩 설정 시]

- Author 엔티티를 조회할 때, 연관된 Book 엔티티는 즉시 로드되지 않는다. 대신, 실제로 books 컬렉션에 접근(예: author.getBooks().get(0))할 때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책들을 로드한다.

[즉시 로딩 설정 시]

- Book 엔티티를 조회할 때, 연관된 Author 엔티티는 즉시 함께 로드된다. Book 엔티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올 때, 연관된 Author 정보도 바로 조회하여 엔티티에 포함시킨다.

3. Fetch 조인

Fetch 조인은 JPA에서 연관된 엔티티나 컬렉션을 SQL의 한 번의 조인을 사용하여 함께 로딩하는 기능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지연 로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N+1 문제를 해결하고,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Fetch 조인은 JPA를 사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이다. 하지만, Fetch 조인을 사용할 때는 데이터의 양과 쿼리의 복잡성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까지 가져오는 과도한 Fetch 조인의 사용은 오히려 성능 저하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예시]

도서(Book)와 저자(Author) 엔티티가 있고 한 저자가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다고 가정

Fetch 조인을 사용하기 전에는 연관된 엔티티를 로드하기 위해 여러 번의 쿼리가 필요했지만, Fetch 조인을 사용한 후에는 단 하나의 쿼리로 필요한 모든 정보를 빠르게 로드할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이 향상되고, 데이터베이스와의 불필요한 통신이 줄어들게 된다.

[Fetch 조인 사용 전]

저자를 조회할 때, 저자의 책들은 지연 로딩(Lazy Loading)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저자 정보만 먼저 로드되고, 각 책의 정보는 접근할 때마다 별도의 쿼리로 로드된다.

@Entity

```
public class Author {
```

```
    @Id
```

```
    @GeneratedValue
```

```
    private Long id;
```

```
    private String name;
```

```
    @OneToMany(mappedBy = "author", fetch = FetchType.LAZY)
```

```
    private List<Book> books;
```

```
}
```

```
        List<Author> authors = entityManager.createQuery("SELECT a FROM Author a", Author.class).getResultList();
```

```
        for (Author author : authors) {
```

```
            author.getBooks().forEach(book -> System.out.println(book.getTitle())); //
```

```
여기서 각 책에 대한 추가 쿼리가 실행됨}
```

[Fetch 조인 사용 후]

Fetch 조인을 사용하여 저자와 그의 책들을 한 번의 쿼리로 함께 로드한다. 이로 인해 추가적인 쿼리 없이 필요한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List<Author> authors = entityManager.createQuery(
    "SELECT a FROM Author a JOIN FETCH a.books", Author.class
).getResultList();

for (Author author : authors) {
    author.getBooks().forEach(book -> System.out.println(book.getTitle())); // 추가 쿼리 없이 책 정보 접근
}
```

4. 고급 매핑 전략

1) 상속 관계 매핑

JPA에서는 객체 지향의 상속 구조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구조에 매핑할 수 있는 여러 전략을 제공한다. 가장 일반적인 상속 매핑 전략은 단일 테이블 전략(SINGLE_TABLE), 조인된 테이블 전략(JOINED), 그리고 구분 컬럼 테이블 전략(TABLE_PER_CLASS)이다.

단일 테이블 전략(SINGLE_TABLE)

- 모든 엔티티를 하나의 테이블에 매핑한다. 가장 간단하지만, null이 허용되는 컬럼이 많아질 수 있다.

조인된 테이블 전략(JOINED)

- 각 엔티티를 별도의 테이블로 분리하고, 상속 구조에서는 조인을 사용하여 관련 데이터를 조회한다. 데이터 정규화가 잘 되어 있지만, 조인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구분 컬럼 테이블 전략(TABLE_PER_CLASS)

- 각 엔티티를 자신의 테이블로 매핑한다. 상속받은 필드들이 각 테이블에 중복되어 저장된다. 이 전략은 데이터베이스의 다형성 쿼리를 지원하지 않는다.

2) 복합 키와 식별 관계 매핑

복합 키는 두 개 이상의 필드를 조합하여 고유 식별자를 생성하는 경우 사용된다. JPA에서는 @IdClass와 @EmbeddedId를 통해 복합 키를 매핑할 수 있다.

@IdClass: 복합 키를 위한 별도의 클래스를 정의하고, 엔티티 클래스에서 이를 사용한다.

@EmbeddedId: 복합 키 필드를 엔티티 내에 직접 임베딩한다.

```

@IdClass(PersonId.class)
@Entity
public class Person {
    @Id
    private String firstName;

    @Id
    private String lastName;
}

public class PersonId implements Serializable {
    private String firstName;
    private String lastName;
}

```

3) 엔티티 간의 관계 매핑 시 고려 사항

단방향 vs 양방향: 양방향 관계는 관리해야 할 참조가 더 많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이 좋다.

지연 로딩 vs 즉시 로딩: 가능한 지연 로딩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성능 문제를 방지한다.

카디널리티 고려: 관계의 카디널리티(일대일, 일대다, 다대일, 다대다)에 따라 적절한 어노테이션을 사용한다.

연관관계 주인: 양방향 관계에서는 연관관계의 주인을 정확히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고급 매핑 전략들은 JPA를 사용하여 복잡한 도메인 모델을 데이터베이스에 효과적으로 매핑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각 전략의 선택은 애플리케이션의 요구 사항과 성능 고려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5. JPA 관계 매핑 최적화

JPA 관계 매핑 최적화는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작업이다. N+1 문제를 해결하고, 적절한 로딩 전략을 선택하며, 데이터베이스와 JPA 설정을 최적화하는 것은 데이터 접근 계층의 성능과 확장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1) N+1 문제

N+1 문제 정의: N+1 문제는 연관된 엔티티를 로딩할 때 발생하는 성능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 번의 쿼리로 N개의 엔티티를 로드한 후, 각 엔티티에 대해 연관된 엔티티를 로드하기 위해 추가적인 N번의 쿼리가 실행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총 N+1번의 쿼리가 실행되어 성능이 저하된다.

예시: Post 엔티티와 Comment 엔티티가 있고, 한 Post에 여러 Comment가 연관되어 있을 때, 모든 Post를 조회하고 각 Post에 대한 Comment를 로딩하려고 하면 N+1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 N+1 문제 해결 전략

Fetch 조인 사용

- JOIN FETCH를 사용하여 관련 엔티티를 미리 로드하면 추가적인 쿼리 없이 필요한 데이터를 한 번에 가져올 수 있다.

```
String jpql = "SELECT p FROM Post p JOIN FETCH p.comments";
```

배치 사이즈 설정

- @BatchSize 어노테이션 또는 hibernate.default_batch_fetch_size 설정을 사용하여 한 번에 로드할 연관 엔티티의 수를 설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지연 로딩을 사용할 때 유용하다.

```
@OneToMany
```

```
@BatchSize(size = 10)
```

```
private List<Comment> comments;
```

또는 application.properties에서 설정:

```
spring.jpa.properties.hibernate.default_batch_fetch_size=10
```

엔티티 그래프 사용

- JPA 2.1부터 추가된 엔티티 그래프 기능을 사용하여 조회 시점에 로딩할 속성을 동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
EntityGraph<Post> graph = entityManager.createEntityGraph(Post.class);
```

```
graph.addAttributeNodes("comments");
```

```
List<Post> posts = entityManager.createQuery("select p from Post p",  
Post.class)
```

```
.setHint("javax.persistence.loadgraph", graph)
```

```
.getResultList();
```

3) 성능 최적화 전략

적절한 로딩 전략 선택

- 필요에 따라 지연 로딩과 즉시 로딩을 적절히 선택한다. 가능한 지연 로딩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불필요한 데이터 로딩을 방지한다.

쿼리 힌트 사용

- 데이터베이스에 최적화된 쿼리를 실행하기 위해 JPA 구현체에서 제공하는 쿼리 힌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응답 크기 최소화

- DTO(Data Transfer Object)를 사용하여 클라이언트에 전송할 데이터의 크기를 최소화한다. 필요한 데이터만 선택적으로 로드하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덱스 활용

-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절한 인덱스를 생성한다.

쓰기 지연 활용

- JPA의 쓰기 지연 기능을 사용하여 엔티티의 변경 사항을 즉시 데이터베이스에 반영하지 않고, 트랜잭션의 끝에서 한 번에 반영하여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다.